

## 『素問』版本概要\*

茨城大學大學院 人文科學研究科, 日本<sup>1</sup>  
眞柳 誠<sup>1</sup> \*\*

『素問』은 다수의 版本이 존재하는데, 字句의 차이가 현저하여 條文의 訓詁나 이해에 곤란한 면이 있다. 版本 상호간의 관계가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成書 아래의 전승과정을 정리하고, 版本으로 만들어진 北宋 아래의 변화를 여러 現存 版本의 字句對校 및 史書·目錄의 記載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亡佚된 宋版을 포함하여 古本 13種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그 상호관계를 『素問』本篇 古本系統圖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 의하여 다음 사항들이 밝혀졌다. ① 『素問』의 字句는 기본적으로 北宋 1069년의 熙寧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② 熙寧本(亡佚)의 舊態를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1550년에 跋刊된 明나라 顧從德本이다. 顧本을 연구의 第一底本으로 삼아야 함은 향후에도 변치 않을 것이다. ③ 元나라 1283년의 讀書堂本은 北宋 1078-85년의 元豐本(亡佚) 계통이다. 日本의 室町古鈔本은 北宋 1121년의 宣和本(亡佚) 계통이다. ④ 따라서 北宋版 3種의 옛 모습을 보유한 顧從德本, 讀書堂本, 古鈔本의 經注文을 對校한다면 熙寧本 혹은 그 底本에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⑤ 熙寧本 이전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太素』나 『甲乙經』 등과 校異하는 것이 좋겠으나 한계도 있다. ⑥ 上記한 것 외에 현존하는 諸版은 모두 派生本이다. 따라서 版本 연구에는 유용하겠지만 字句의 訓詁나 條文의 이해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1. 序論

馬王堆 등에서出土된 醫書나 『史記』 扁鵲·倉公傳 등의 記述을 보면, 先秦時代부터 축적된 의학지식과 기록이 복잡한 경위를 거쳐 여러 문헌에 집적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集大成 중 하나가 『漢書』 藝文志·方技에 著錄된 「黃帝內經十八卷·外經三十七卷」이었을 것이다. 『漢志』는大概를 기원전 6년쯤에 완성된 『七略』에 依據하였으며, 方技書들은 西漢의 侍醫인 李柱國이 정리, 分류하고 書名을 부

여한 것이다<sup>1)</sup>. 『漢志』 方技에 著錄된 「扁鵲內經九卷·外經十二卷、白氏內經三十八卷·外經三十六卷、旁篇二十五卷」 중 일부의 계통은 魏晉까지 전승되었지만, 南北朝 때 거의 亡佚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황은 『葛氏方』·『脈經』과 『范汪方』·『小品方』의 인용 문헌의 차이나 최근出土된 문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西漢末까지 전승된 黃帝 계열의 基礎文獻群으로부터 취사선택과 정리를 거쳐, 東漢 1세기 초에 『素問』의 書名과 내용이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本書의 많은 부분이 전설상의 인물인 黃帝와 岐伯, 雷公, 鬼臾區 등 신하의 문답에 假託한 형식으로 編述되어 있다. 중국, 인도, 그리스의 고대문헌은 문답 형식으로 기술된 것이 많다. 당연히 本書나 『九卷』(이후의 『鍼經』, 『靈樞』)은 한 사람, 한 시대의 저작이 아니

\* 本稿는 이하 拙稿들의 概要에 해당한다. 『素問』 版本研究(その1). 季刊內經. 2012. 188. pp.4-57. 『素問』 版本研究(その2). 季刊內經. 2012. 189. pp.4-42. 『素問』 版本研究(その3). 季刊內經. 2013. 190. pp.4-44. 『素問』 版本研究(その4). 季刊內經. 2013. 191. pp.4-40.

\*\* 교신저자: 眞柳 誠. 日本 (310-8512) 水戸市 文京 2-1-1 茨城大學大學院 人文科學研究科

E-mail : makoto@mx.ibaraki.ac.jp Tel : 029-228-8194

접수일(2013년 9월13일), 수정일(2013년 10월29일),

제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1) 柳長華. 『漢書·藝文志』醫經著錄研究. 山東中醫藥大學學報. 1999. 23(2). pp.137-141.

며, 내용이나 어휘를 보면 秦代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漢代의 것, 혹은 漢 이후로 추정되는 것들이 現傳本에 混在하고 있다. 같은 篇 안에서 조차 발전단계가 다른 논설이併記된 경우도 있다<sup>2)</sup>.

『素問』의 書名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3세기 前期의 『傷寒論』 張仲景序로서, 「素問·九卷·八十一難」이라 하였으며, 3세기 後期의 『脈經』 卷3에도 經文의 出典을 「右素問·鍼經·張仲景」이라고 注記하였다. 이 두 문헌에서는 「素問」, 「九卷(鍼經)」이라 했을 뿐 「黃帝」나 「內經」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으니, 『漢志』에 나오는 「黃帝內經十八卷」과의 관계를 당시에는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 仲景이 두 책을 「素問·九卷」이라고 기록했으니, 당시의 『素問』은 9卷이 아니었다. 全元起本에 의하면 아마도 8卷이었을 것이다. 이후 本書는 중국 및 주변 국가의 전통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古典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다.

특히 北宋시대에 校定·刊行된 이래, 많은 醫家들이 本書의 醫論을 임상에 응용하고 발전시켰다. 이러한 계승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계 전통의학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注解書나 研究書도 汗牛充棟이라 할 만하니, 本書가 후세에 기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그러나 校定과 出版이 여러 번 거듭되면서 字句에 복잡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 2. 宋代까지의 傳承

東晉의 無名氏가 『甲乙經』을 4세기 후반에 편찬<sup>3)</sup>하였다. 그 序文에서 당시의 『鍼經』九卷과 『素

- 2) 劉伯堅 著, 丸山敏秋 譯. 黃帝內經概論. 千葉: 東洋學術出版社. 1985. pp.17-33, 106-118.  
3) 『甲乙經』은 皇甫謐(215-283)이 3세기 후반에 편찬하였다 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本書는 여러 면에서 3세기 後期의 『脈經』을 의식하고 참조하여 편찬한 것이다. 또 卷7 이후의 孔穴主治文은 「病症+穴名+主之」의 형식으로 기술하여, 仲景醫書의 「病症+方名+主之」 형식을 轉用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仲景醫書의 영향도 받았거니와, 葛洪 이래 東晉부터 시작하여 范汪(약 308-372)의 4세기 후반에 점차 널리 괴쳤음을 『醫心方』에 인용된 『范汪方』佚文을 통해 알 수 있다. 요컨대 『甲乙經』은 東晉 4세기 후반 무렵에 無名氏가 편찬했음에 틀림없다. 『甲乙經』의 인용문이 『小品方』(454-473)에 처음으로 등장한다(『醫心方』 卷2)

問』九卷이 바로 『漢書』 藝文志에 나오는 「黃帝內經十八卷」이라는 설을 최초로 제기하였으며, 이것이 후세에 환영받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500年 전후의 齊梁 시기에는 全元起가 『素問』에 訓解를 가하고 篇順을 정리하여 『黃帝素問』8卷을 편찬하였다<sup>4)</sup>.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書名에 「黃帝」를 덧씌워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唐의 永徽醫疾令(651)을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sup>5)</sup>, 각국의 國令으로 鍼生의 교육과 시험에 채용된 『素問』은 全元起本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6)</sup>. 全元起本은 北宋 이후 亡佚되었다. 唐代에는 王冰이 全元起本도 참조해서 각篇'次'에 걸쳐 '注'를 덧붙인 '次注本'8卷을 편찬(762)하였는데, 書名은 全元起本과 같이 「黃帝素問」이었다. 王冰도 『甲乙經』序의 「黃帝內經」 설을 답습하였지만, 「鍼經」 대신 「靈樞」라고 호칭하였다. 이 때문에 高麗獻本에 기초한 北宋 1093年版 『鍼經』이 南宋 1155年에 再版될 때 『靈樞』로 改名된 것은 後述하기로 한다. 또한 五代-北宋初期에 運氣七篇의 經文이 作成되고 그 注文도 王冰의 이름을 假託하여 僞作되었으며, 이것이 改變된 王冰序와 함께北宋初期에 덧붙여져 次注本24卷이 되었다<sup>7)</sup>.

는 史實도 이를 傍證한다.

- 4) ① 藤山和子. 全元起注『黃帝素問』の成立について. 東方學. 1985. 70. pp.18-32. ② 松木きか. 『黃帝內經素問』「全元起注本」の復元と「王冰注本」の構成. 集刊東洋學. 1991. 66. pp.60-82. ③ 段逸山. 『素問』全元起本研究與輯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全276쪽.  
5) ① 丸山裕美子. 北宋醫疾令による唐日醫疾令の復原試案. 愛知縣立大學日本文化學部論集(歴史文化學科編). 2010. 1. pp.21-40. ② 丸山裕美子. 律令國家と醫學テキスト-本草書を中心に. 法史學研究會會報. 2007. 11. pp.25-41. ③ 程錦. 唐醫疾令復原研究(天一閣·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北京: 中華書局. 2006. pp.551-580.)  
6) 『日本國見在書目錄』(891-897)의 醫方家 筆頭에 「黃帝素問 十六、全元起注」라고만 著錄되어 있으므로, 각국의 醫疾令에 규정된 서적은 全元起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7) ① 范行準. 中國醫學史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pp.126-134. ② 山田慶兒. 氣の自然像. 東京: 岩波書店. 2002. pp.1-25.

### 3. 版本系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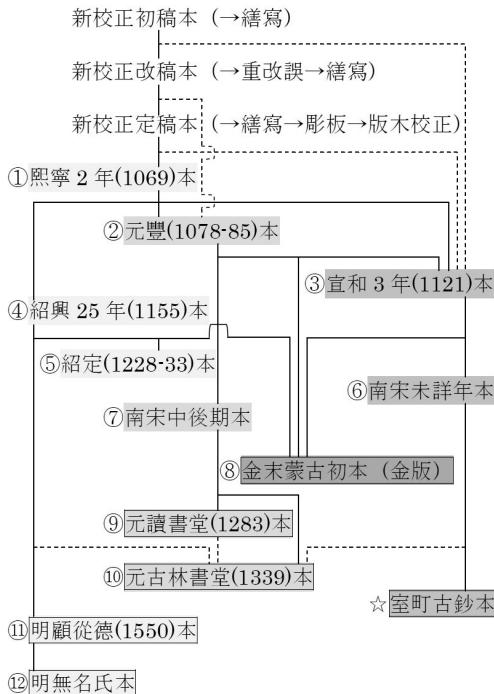


그림 1. 『素問』本篇 古本系統圖

우선 이해를 돋기 위해 4계통의 古本系統圖를 먼저 보도록 하자. 이 그림은 音釋이나 亡篇(遺篇)을 제외한 經文과 注文의 계통을 나타낸 것이다. 각本의 이름에 A-D의 4계통을 배경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했으며, 테두리가 있는 것은 現存本이다.

A系統 : ①北宋熙寧2년의 新校正本을 覆刻하고 卷末에 音釋을 덧붙인 ④南宋紹興25年本 / 紹興本을 再版한 ⑤南宋紹定本 / 紹定本을 影刻한 ⑪明顧從德本 / 顧從德本을 覆刻한 ⑫明無名氏本

B系統 : 新校正의 改稿本과 熙寧本을 再校定하고 注下에 音釋을 덧붙인 ②北宋元豐本 / 元豐本을 影刻한 ⑦南宋中後期本 / 南宋中後期本을 覆刻하고 亡篇을 付錄한 ⑨元讀書堂本 / 南宋中後期本과 亡篇을 影刻하고 일부 字句를 고친 ⑩元古林書堂本

C系統 : 熙寧本과 元豐本과 新校正의 初稿本과 定稿本도 병용하였으며 注下에 音釋을 덧붙인 ③北宋宣和3年本 / 宣和本의 ⑥南宋未詳年翻刻本에 기초한 日本의 室町古鈔本

D系統 : 元豐本과 宣和本에 紹興本 계통을 병용하여, 卷末에 音釋을 덧붙이고 亡篇을 付錄한 ⑧金末蒙古初刊金版

### 4. 北宋版

#### ①熙寧本

北宋 정부는 『素問』을 天聖, 景祐, 熙寧, 政和의 4차에 걸쳐 校定하였으며, 天聖, 熙寧, 政和의 校定本이 刊行되었다<sup>8)</sup>. 天聖醫疾令(1029)에서 鍼學의 必習書로 정한 『素問』<sup>9)</sup>은 天聖校刊本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校正醫書局의 高保衡, 孫奇, 林億이 담당하고 孫兆도 참여한 교정이 가장 대규모였는데, 林億 등의 서문에 “臣等承乏典校, 伏念旬歲”라고 기록하였듯 10년에 걸친 新校正으로 熙寧2年(1069)에 나온<sup>10)</sup> 熙寧本이 이것이다. 그들은 初稿本, 改稿本, 定稿本 등으로 교정을 거듭하여, 影板 후에도 版本에서 不正字를 삭제하고 脫字를 補刻하였다. 이것은 後述할 顧從德本에 있는 空格 부분을 室町古鈔本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素問』의 모든 版本은 이 熙寧本을 근간으로 한다. 南宋의 『直齋書錄解題』<sup>11)</sup>나 『通志』 藝文略<sup>12)</sup>의 기록 등에 의하면 熙寧本은 정식 書名이 ‘補注黃帝內經素問’이고 內題는 ‘黃帝內經素問’이며, 24卷79篇이었다. 醫書의 卷末에 音釋(字音·字義·聲調)을 붙이는 것은 北宋末 이후의 풍조이므로, 熙寧本은 注下에도 卷末에도 音釋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

8) 王應麟. 『玉海』 卷63. 江蘇古籍出版社·上海書店影印本. 1987. p.1196.

9) 天一閣·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北京. 中華書局. 2006. pp.551-580.

10) 松木きか. 北宋の醫書校訂について. 日本中國學會報. 1996. 48. pp.164-181.

11) 陳振孫 『直齋書錄解題』(許逸民 등 編. 『中國歷代書目叢刊』 第1輯 下. 北京. 現代出版社, 1987. p.1360.)

12) 岡西爲人. 宋以前醫籍考. 台北. 古亭書屋. 1969. p.5.

존하는 각본을 보면 王冰序는 ‘黃帝內經素問序’, 林億等序는 ‘校正黃帝內經素問序’라는 제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단계 혹은 天聖이나 景祐의 교정 단계에서 書名에 ‘內經’이 덧붙여져 ‘黃帝內經素問’이 된 것이다. 이것이 『素問』이 바로 西漢의 ‘黃帝內經’의 일부라는 傳說을 뒷받침하여, 지금까지 通說로 굳어지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熙寧本도 현존하지 않는다.

### ②元豐本

北宋의 元豐 연간(1078-85)에는 全篇에 걸쳐 注下에 音釋이 덧붙여진, 私家版인 孫氏校刊本이 있었다. 元豐本의 존재는 後述할 元·古林書堂本의 總目冒頭에 있는 木記의 내용 및 古林本과 元·讀書堂本의 書式과 字句 특징으로부터 알 수 있다. 元豐本은 孫兆 개인이 再校定하였고, 出版에는 『宋史』에 臨臣으로 기록된 宰相 呂惠卿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孫兆의 아우인 孫宰가 呂惠卿의 부하였던 시기가 있으며, 呂惠卿은 編校集賢院書籍, 秘書省校書郎, 判國子監을 역임하여<sup>13)</sup> 出版에도 정통했기 때문이다. 讀書本과 古林本에 의하면 元豐本의 정식 書名은 ‘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內題는 ‘新刊黃帝內經素問’이었을 것이다. 林億等序는 제목을 ‘校正黃帝內經素問序’라 하고 말미에 高保衡, 孫奇, 林億의 列銜을 기재하였으며, 王冰序는 제목을 ‘黃帝內經素問序’라 하고 말미에는 孫兆의 術名을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元豐本도 현존하지 않지만, 그 舊態는 ⑦南宋 후기坊刻本의 再版本을 거쳐서 讀書本에 보존되어 있다.

### ③宣和本과 室町古鈔本

徽宗 황제 때 醫官育成 제도가 변경되어 崇寧2년(1103)에 首都인 開封의 醫學校에서 사용할 교과서가 정해졌는데, 그 筆頭가 『素問』이었다. 政和5년(1115)에는各地의 醫學校에서도 거의 같은 규정이 실시되었다<sup>14)</sup>. 그러한 醫官育成의 擴充에 대응하는

13) 脫脫 等.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77. p.289. pp.308-309, 13705-13708.

14) 徐松 輯. 『宋會要輯稿』崇儒3之12·同3之16-19.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1957. p.2199. pp.2201-2203.

것이 北宋 최후의 『素問』 校定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徽宗도 校定에 관심을 가졌던 데다 宰相인 蔡京과 그 長子인 蔡攸가 主唱하여, 蔡京을 최고 책임자로 하고 蔡京의 二子인 蔡儼을 실질감독으로 하여 政和8년부터 校定을 개시했으며, 校正人員에는 儒官, 醫官, 道士가 선임되었다<sup>15)</sup>. 校正內經·同詳定官이었던 蔡儼이 宣和3年(1121) 12월 25일에 名譽學位인 ‘進士出身’을 하사받았으니<sup>16)</sup>, 校定은 그 해까지 완료되어 그 무렵에 刊行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宣和本이다.

그런데 日本의 宮內廳書陵部에는 室町(무로마치) 시대인 14세기 중엽-15세기 중엽에 筆寫된 古鈔本 『素問』이 所藏되어 있으며, 그 중 卷18의 말미에 ‘假承務郎權醫學錄臣趙叔度校正 / 軍器庫副使兼翰林醫官臣盧德誠校正’이라는 列銜이 있다. 『摘文堂集』은 慕容彥逢(1067-1117)이 徽宗의 조정에서 벼슬 한 동안의 詔勅 등을 編集한 것인데, 이 책에 ‘盧德誠 등이 醫功이 있으므로 進官一等하였다’는 기록<sup>17)</sup>이 있으니, 室町古鈔本의 底本은 宣和本 계통이었음이 確證된다. 室町古鈔本을 검토한 결과, 宣和本24卷79篇은 熙寧本과 元豐本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新校正의 初稿本과 定稿本도 참조하였다. 經注文의 대부분은 熙寧本과 元豐本 양자의 특징을 계승하였으나, 字句가 새로 校正되거나 補足되기도 하였다. 音釋을 注下에 배치한 점은 元豐本을 따랐으며 많은 音釋을 轉載하였지만, 일부에 增損이 있다. 정식 書名은 ‘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이며, 卷頭·卷末題는 ‘黃帝內經素問’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北宋의 首都인 開封을 金軍이 侵攻한 靖康의 變 때에 蔡京 일족이 臨臣으로 斷罪되고, 宣和本은 版木을 金軍에게 약탈당하여 결국 역사의 그늘에 묻혀 버리게 되었다. 宣和本도 현존하지 않는데, ⑥南宋

15) 徐松 輯. 『宋會要輯稿』崇儒4之10-11.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1957. p.2221.

16) 徐松 輯. 『宋會要輯稿』選舉9之16.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1957. p.4390.

17) 四庫全書本(永樂大典本) 『摘文堂集』卷7에 “西綾錦副使兼翰林醫官副使蓋演醫官副使盧德誠·翰林醫官賜號丁銳·翰林醫學李師老、可各轉一官制。/勅具官某等。爾等祗事衛府醫診有勞、宜錫恩賞、昭示嘉獎、進官一等。其克欽承可”라 하였다.

未詳年의坊刻再版을 보면 卷頭와 卷末에 ‘重雕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며, 그 중 卷18의 말미에만 우연히도 舊題와 擔當校定者の列銜이 남아있다. 이것을 筆寫한 것이 古鈔本이다.

## 5. 南宋版

### ④紹興本

後述할 明·顧從德의 仿宋影刻本『素問』24卷은 版心의 刻工名에 의하면 南宋·紹興年間刻本을 底本으로 하였는데, 經注文의 缺筆(避諱 목적으로 筆劃을 생략한 것)에 근거하여 熙寧本『補注黃帝內經素問』을 覆刻하였음이 밝혀졌다<sup>18)</sup>. 別稿에서 논하겠지만, 南宋의 國子監은 史崧이 獻上한 北宋·元祐8年(1093)刊『鍼經』9卷本 계통을 底本으로 하되 書名과 卷數를『靈樞』24卷으로 바꾸어 紹興25年(1155)에 序刊하였다. 그렇다면 紹興本『素問』도 같은 해에 함께 刊行된 것이 틀림없다. 이 合刻을 위해 王冰의 말과 같이『鍼經』을『靈樞』로改名하고, 9卷을 24卷으로 分卷하여『素問』24卷에 맞춘 것이다. 한편『素問』은 두 책의 合編을 의미하는‘重廣’을 덧붙여, 序題와 卷頭·卷末書名 모두‘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으로改稱하였다. 이 合刻에 의하여 비로소 兩書를‘黃帝內經’으로統稱하게 되었다.

上述한 改變을 주도한 것은 侍醫로서 南宋初代皇帝인 高宗을 농락하여『宋史』에 佞幸으로 평한 王繼先(1098-1181)<sup>19)</sup>과 그 門下의 醫官이었다. 그들은 元豐本과 宣和本의 音釋을 인용하여 熙寧本의 卷末에 付記하였으며, 새로 만든 音釋까지 두서없이 추가했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들이 덧붙인 것으로 여겨지는 總目「黃帝內經目錄」(낫표를 반각기호로 바꿨음)에도 문제가 있었다. 紹興本에는 王繼先 등의 序나 列銜 등도 있었을 터나, 王繼先이 1161年에 彙劾, 追放<sup>20)</sup>되었기 때문에 그 후 南宋 때에는 紹興本을 重印하거나 再版할 때

18) 小曾戶洋. 中國醫學古典と日本. 東京. 塙書房. 1996. pp.131-132.

19) 脫脫 等.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77. pp.13686-13688.

20) 方春陽. 中國歷代名醫碑傳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p.165-171.

王繼先 등의 序跋과 列銜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紹興本에서의『素』·『靈』合刻이나 音釋을 덧붙인 사실 등이 오늘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紹興本『素問』도 현존하지 않지만 그 舊態는 顧從德本에 보존되어 있다. 南宋 때에는 國子監이 重刊한 것으로 여겨지는 ⑤紹定(1228-33)本, 古鈔本의 底本으로서 宣和本에 기초한 ⑥南宋未詳年坊刻本, 그리고 元豐本을 어느 정도 충실히 翻刻한 ⑦南宋中後期坊刻本도 있었지만, 모두 亡佚된 것으로 보인다.

## 6. ⑧金版

刻工名으로 보아 金末蒙古初 13세기 중엽의 平水刊本이라 판단할 수 있는 金版이 中國國家圖書館에 유일하게 현존<sup>21)</sup>한다. 民國시대에 출현<sup>22)</sup>하였으며, 卷3-5·11-14의 2冊 및 卷15-18·20과 亡篇의 3冊이 補配되어 현재에 전한다. 卷末에 있는 대량의 音釋 중 일부는 명백히 紹興本 계통에서 轉用한 것이고, 經注文도 紹興本 계통을 主底本으로 하였으며, 일부에 元豐本 계통과 宣和本 계통도 사용되었다. 付錄의『亡篇』2篇은 北宋 초기<sup>23)</sup>에 鍼治療와 醫藥을 좋아하는 道士가『素問』특히 運氣七篇을 참조하여 날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熙寧本 시대부터 이미 유포되고 있었으나<sup>24)</sup>, 宋版『素問入式運氣論奧』에 付錄으로『素問遺篇』이 있으므로<sup>25)</sup> 金版은 그것을 轉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金版의 底本이 된 紹興本系, 元豐本系, 宣和本系는 원형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존한 판본들이 현존한다. 따라서 그 판

21) 袁柳誠. 現存最古の『素問』、北京圖書館藏の金版. 漢方の臨床. 1999. 46(9). pp.1536-1538.

22) ① 王文進. 文祿堂訪書記. 上海古籍出版社. 2007. p.167.

② 丁福保, 周雲青. 四部總錄醫藥編. 上海. 商務印書館.

1955. p.320.

23) 王玉川, 梁峻. 『素問遺篇』成書年代考辨. 北京中醫學院學報. 1993. 2. pp.10-13.

24) 『素問』卷21 冒頭의篇目에 “刺法論篇第七十二亡·本病論篇第七十三亡”이라 하였다. 또篇目 아래의 新校正注에 “詳此二篇、亡在王冰之前。按病能論篇末王冰注云、世本既缺第七二篇、謂此二篇也。而今世有素問亡篇及昭明隱旨論、以謂此三篇、仍託名王冰為注、辭理鄙陋、無足取者”라 하였다.

25) 岡西為人. 宋以前醫籍考. 台北. 古亭書屋. 1969. p.61.

본들보다 金版이 가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7. 元版

### ⑨讀書堂本

元의 讀書堂本 24卷·付『亡篇』2篇은 民國시대에 출현<sup>26)</sup>하였다. 현재 中國國家圖書館에 한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海鹽張元濟 / 庚申歲經收’라는 藏印記가 있으므로 張元濟가 民國 庚申年(1920)에 입수한 것이다. 그의 『涵芬樓鑑餘書錄』(1951)에도 著錄<sup>27)</sup>되어 있다. 이것과는 別本으로 ‘□□歲癸未中和節、書于讀書堂’이라는 序文이 들어있는 讀書本이 民國시대<sup>28)</sup>의 기록에 나오는데, 現所在는 알 수 없다. 이 序文의 ‘歲癸未’로 보아 讀書本은 前至元20年(1283)에 序刊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國家圖書館本의 『亡篇』은 字樣으로 보아 明·嘉靖年間 전후에 修補된 것이다. 讀書本에는 宋代의 譚를 피한 缺筆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 등에 의하여 元豐本에 기초한 南宋中後期翻刻本의 覆刻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僞撰인 『亡篇』이 付錄되기는 했으나 『素問』本篇의 字句는 문제점이 비교적 적고, 元豐本의 舊態가 길게 남아있다. 앞으로 『素問』연구의 중요 底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⑩吉林書堂本

江西廬陵의 吉林書堂이 24卷을 12卷으로 개편하여 元나라 後至元5年(1339)에 출판한 吉林本은 다수가 현존한다. ‘元豐孫校正家藏善本’이라고도 하는 南宋中後期本에 기초한 翻刻이므로, 讀書本과는 형제관계가 된다. 그러나 일부 字句에서 紹興本系 및 宣和本系인 南宋末詳年翻刻本에 의거한 ‘校正’이 확인된다. 또 卷數나 諸書式까지 바꾼 데에는 讀書本과의 유사함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한편 吉林本 『運氣論奧』에 付錄으로 달린 『遺篇』(舊名은 亡篇)을 他本과 비교해 보면, 吉林本과 讀書本은

같은 계통이고 金版은 다른 계통이다. 古林本의 本篇 역시 元豐本의 舊態를 보유하고 있지만 脫文·簡略이나 略字·俗字가 많으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字句가 讀書本보다 많다.

吉林本의 영향은 큰 것이어서, 明代에만도 『道藏』本(1436-69), 熊宗立本(1474), 田經本(嘉靖初期), 舊林所本(嘉靖前期), 種德堂本(1553), 趙府居敬堂本(嘉靖年間), 吳悌本(1532項), 吳勉學本(1601)으로翻刻되었다. 또 三木榮(미카 사카에)는 朝鮮本 『新刊補註釋問黃帝內經素問』12卷의 活字版과 木版 6種을 報告<sup>29)</sup>하면서, 그 書名과 卷數에 근거하여 古林本系임을 지적하였다. 刊年이 기재된 것은 그 중 다섯째로 든 萬曆43年(1615) 内醫院刊 訓鍊都監活字本으로서, 『素問入式運氣論奧』3卷을 付印하였다. 乙亥活字本 『素問』에도 『運氣論奧』가 付印되어 있으니 어느 쪽이나 古林本 계통이다.

## 8. 明版

### ⑪顧從德本

『素問』의 明版은 여러 가지가 현존하는데, 그 筆頭은 顧從德本이다. 1538年에 嘉靖帝의 侍醫이자 太醫院御醫가 된 上海의 名家 顧定芳(1489-1554)<sup>30)</sup>의 二男이 顧從德(1518-87)으로, 朝廷에서 鴻臚寺序班의 관직에 올랐다<sup>31)</sup>. 顧氏父子가 紹興本을 精緻하게 影刻한 것이 1550年에 跋刊된 顧本이다. 그 初刻本은 顧從德의 跋 2매를 첨부하였지만 顧定芳의 校記가 刻入되지 않았기 때문에, 跋文을 빼버리면 宋版으로 가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經籍訪古志』에 著錄된 ‘明代摸刻宋本’의 實態이다. 이러한 위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할 텐데, 아마도 顧定芳이 沒한 1554年 이후에 校記를 書末에 木版의 일부를 과내고 나무를 끼워넣어 다시 새기는 방

29)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p.203-207.

30) ① 高毓秋. 滯地出土金墓及濕屍考古兩則. 醫古文知識. 1995. 1. pp.33-35. ② 方春陽. 中國歷代名醫碑傳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p.543-545.

31) 王世貞 『弇州四部續稿』卷107(『四庫全書』集部別集類·明洪武至崇禎)에 “孺人……得壽六十、有六子婦事見前。女三適鴻臚寺序班顧從德”이라 하였다.

26) 孫殿起. 版書偶記. 上海古籍出版社. 1982. p.227.

27) 李茂如 等.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241.

28) 丁福保, 周雲青. 四部總錄醫藥編. 上海. 商務印書館. 1955. p.320.

법)으로 刻入한 것이 顧氏補刻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補刻本의 대다수는 교묘하게 校記까지 잘라내어 宋版으로 위장되어 있다.

일찍이 仿宋版으로 여겨지던 ⑫明·無名氏에 의한 『靈樞』와의 合刻本 역시嘉靖後期의 業者가 겹겹이 위장한 顧本의 해적판이었다. 無名氏本의 영향은 四庫全書本『素問』에서도 확인된다. 진정한 顧本으로는 明과 清의 翻刻本이나 日本·安政4年(1857)의 覆刻本도 있지만, 근현대의 影印本만은 못하다. 그러나 影印本에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용하는 데에 주의를 요한다. 이 외에 明清版, 朝鮮版, 和刻版은 모두 上記한 각本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생략하겠다.

## 9. 總括

『素問』은 이상과 같이 약 2천년의 時空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訛字나 増損이 생겨났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校定이 거듭되면서 ‘타당성이 낮은’ 字句를 ‘타당성이 높은’ 字句로 改字하기도 했다. 校定에 의하여 唐代는 물론이고 漢代, 심지어 上古의 字句로 ‘復古하겠다’는 신념, ‘復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변화된 字句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校勘하고 논리적으로 訓詁한다 할지라도, 타당성의 정도를 따지는 것일 뿐이지 當否를 확정할 수는 없다. 『素問』과 『靈樞』의 經文을 『太素』와 비교하다 보면 推定을 뛰어넘는 字句의 변화에 愕然히 놀랄 때가 있다. 현재의 『素問』, 『靈樞』 연구는 그런 장해를 안고 가까스로 지금의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素問』으로 한정해서 말하자면 결국 기본적으로 熙寧本 이전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 따라서 熙寧本의 舊態를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顧從德本을 第一底本으로 삼아야 함은 향후에도 변치 않을 것이다. 그 經注文을 元豐本系인 讀書本 및 宣和本系인 古鈔本과 對校함으로써 熙寧本 혹은 熙寧本의 底本에 한층 다가서는 일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 이전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太素』나 『甲乙經』 등과 校異하는 것이 좋겠으나, 물론 한계도 있다. 上記한 것 외에 현존하는 諸本은 모두 派生本이므로, 이들 각本은 版本 연구에는 유용하지만 字句의 訓詁나

條文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적당치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素問』은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 經文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中國最古의 醫學古典이다. 그러나 ‘校定’이 계속되어 온 역사를 볼 때, 그 해석이나 이용에는上述한 바와 같은 난점이 있다. 앞으로 연구를 심화해 나감에 있어서도 한층 더 주의가 필요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 【Profile】

眞柳 誠 (마야나기 마코토)

1950년생. 東京理科大学薬学部 졸업(1977), 日本鍼灸理療専門学校 졸업(1980), 北京中醫藥大學進修課程 졸업(1983) 후 昭和大学医学部에서 醫學博士(1992) 학위를 받았다. 前 北里研究所東医研医史学研究部·医史文献研究室室長. 현재 茨城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科教授, 日本医史学会常任理事, 中国出土資料学会理事, 東亞医学協会理事, 日本薬史学会評議員.

共編著로 『和刻漢籍医書集成』(エンタプライズ, 1988~1992), 『小品方·黃帝內經明堂古鈔本残卷』(北里東医研, 1992), 『中国本草図録』(中央公論社, 1992~1993), 『[善本翻刻] 傷寒論·金匱要略』(日本東洋医学会, 2009) 등 45書, 研究論文·調査報告는 250篇이 있다.

이 논문은 저자와의 협의에 의해 金惠一(경희대 원전학교실 박사 수료, Khi108@khu.ac.kr)이 國譯하였음을 밝힌다.

